

■ 주요 뉴스: 미국 11월 바농업 고용 호조, 인플레이션 및 고강도 통화긴축 우려 자극

- 유로존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, ECB는 인플레이션 목표(2%) 달성 강조
- EU 27개국,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 합의(배럴당 \$60)
- 중국 국영은행, 규제당국 지시로 부동산 개발업체 채무상환 지원 예정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 고용지표 호조가 위험자산 선호 약화에 일부 영향

주가 하락[-0.1%], 달러화 약세[-0.2%], 금리 하락[-1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, 장 초반 1.1%까지 하락 후 0.1%로 낙폭 축소
유로 Stoxx600지수는 지난 2일 연속 상승 후 소폭 하락 조정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파월 의장 발언(11/30일, 긴축 속도조절 시사) 여파가 지속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1%, 0.8% 상승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혼조 속 하락
독일은 유로존 인플레 둔화 징후보다 미국 인플레 우려에 더 크게 반응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97.9원, -1.5원) 0.1% 하락, 한국 CDS 상승

		12/2일	12/1일	전일대비			12/2일	12/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071.7	4,076.6	-0.12%	국채 금리 10y	미국	3.49%	3.50%	-1bp
	유럽	443.29	443.96	-0.15%		독일	1.86%	1.81%	5bp
	중국	3,156.1	3,165.5	-0.29%		영국	3.15%	3.10%	5bp
	일본	27,778	28,226	-1.59%	CDS 5y	한국	51bp	49bp	2bp
	한국	2,434.3	2,479.8	-1.84%		중국	77bp	76bp	1bp
	달러지수	104.51	104.73	-0.21%	위험 지표	EMBI+	-	384bp	-
유로화	1.0535	1.0520	0.14%	VIX		19.06	19.84	-3.93%	
환율	엔화	134.31	135.33	0.75%		WTI유	79.98	81.22	-1.53%
	위안화	7.0535	7.0534	0.00%	원자재	구리	384.8	381.4	0.89%
	원화	1,299.9	1,299.7	-0.02%		금	1,797.6	1,803.1	-0.30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11월 비농업 고용 호조, 인플레이션 및 고강도 통화긴축 우려 자극

- 미국 노동부,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수는 26.3만명 증가(예상치 20.0만명)했고 실업률은 3.7%를 유지했으며 시간당 평균임금은 0.6% 상승했다고 발표
- JPMorgan은 내년 미국 노동시장이 경기 침체 상황을 잘 견디고 임금 상승률이 높게 유지된다면 연준이 정책금리를 시장 예상보다 더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고용지표 호조는 시장에 호재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
- BMO Wealth Management는 12월 FOMC에서 금리 0.5%p 인상이 여전히 실현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지만, 금번 고용지표 호조는 FOMC 내 매파적^{hawkish} 위원들이 조금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유로존, 생산자물가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징후

- Eurostat(EU 통계청), 10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(PPI)는 전월 대비 2.9% 하락하여 예상(-2.0%)보다 크게 둔화되었다고 발표. 주로 에너지 가격 하락(-6.9%)에 기인

■ ECB 부총재, 인플레이션 목표(2%) 달성 강조

- 권도스 부총재, ECB는 인플레이션율을 중기 목표인 2%까지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하며,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했지만 둔화가 안정될 때까지 정책금리를 계속 올려야한다고 강조. 12월 회의에서는 보유자산 축소 방법도 결정될 것이라고 부언

■ EU,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 합의(배럴당 \$60)

- EU 27개국은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 \$60을 최종 승인. 12/5일* 첫 시행한 후 '23년 1월부터 2개월 마다 평균 시장가격보다 최소 5% 낮도록 조정할 예정 * EU의 6차 대러 제재 조치 중 하나인 러시아산 원유 해상운송분 금수 조치 발효일

■ S&P,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

-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, 대규모 정부 부채, 구조개혁 이행 위험, 경기 둔화, ECB 통화긴축 여건 속에서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지급이 재정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전망을 “안정적^{stable}”에서 “부정적^{negative}”로 하향 조정

■ 중국 주요 국영은행, 부동산 개발업체 채무상환 지원 예정

- Reuters,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규제당국이 4대 국영은행들에게 12/10일 전까지 해외 채무상환 지원을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역외 대출을 제공(국내 자산을 담보)하도록 창구 지도(또는 구두 지시)했다고 보도

* '23년 1분기 중 \$390억 채무 만기 예정(이 중 \$100억은 미 달러화 표시)

■ 체코 3분기 GDP, 예비치 대비 소폭 상향 조정

- 체코 중앙은행(CNB), 3분기 GDP 성장률을 11월 초에 발표했던 예비치 -0.4%_{qoq} 보다 소폭 높은 -0.2%로 발표하면서, 가계의 최종재 소비지출이 GDP 감소의 주된 요인이었던 반면 대외 수요는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

■ 필리핀 중앙은행, 국부펀드 설립안*에 대한 경계의 시각 표명

* 신설 추진 중인 국부펀드가 다양한 금융상품(현금, 외화, 원자재, 채권, 이슬람 투자, 주식 등)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. 현재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크리스마스 휴회 전(12/17일) 마지막 독회 예정

- 메달라 중앙은행(BSP) 총재, 최근 국부펀드(대통령 감독) 신설 추진과 관련해 과거 1MDB 스캔들을 거론하면서, 기금의 지배구조가 핵심 관심사가 될 것이며 관리 방법, 운영 주체, 중앙은행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

■ 인도네시아, 기대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 가시화

- 와르지요 중앙은행(BI) 총재, 4개월 전부터 공격적인 정책금리 인상(7월 3.50% → 11월 5.25%)을 시작한 이후, 당초 6.9%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던 인플레이션 기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중앙은행 전망치인 5.5%에 근접하고 있다고 언급

주요 경제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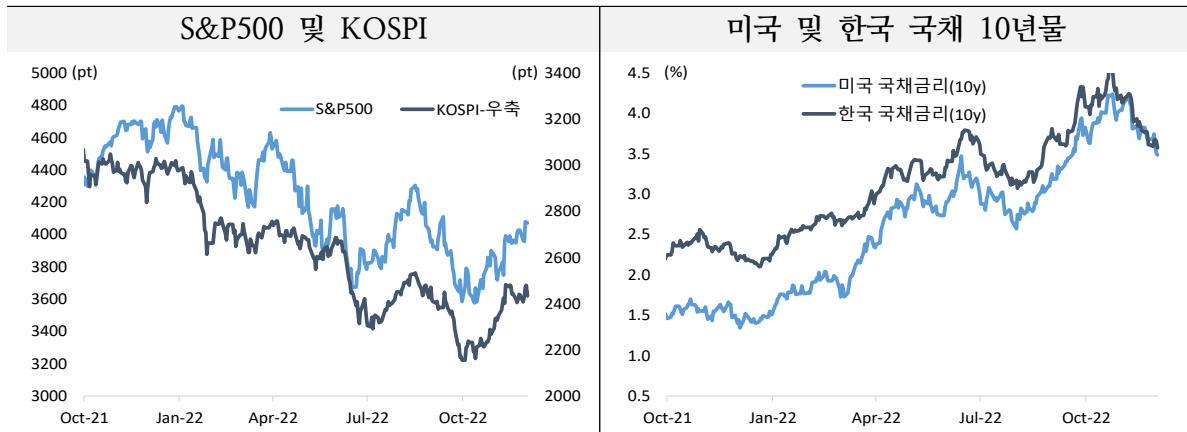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2/2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(만명): 26.3, 전월(28.4), 예상치(20.0)
- 미국 11월 실업률(%): 3.7, 전월(3.7), 예상치(3.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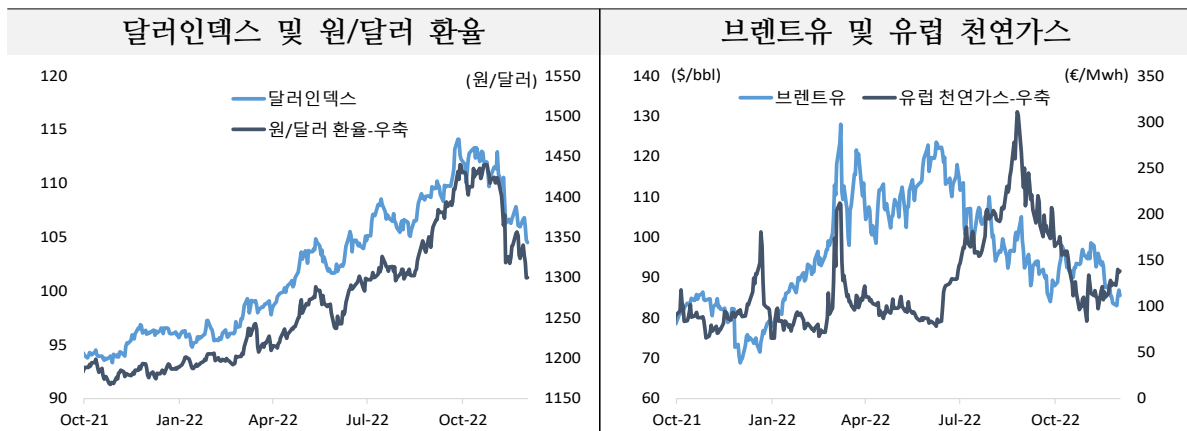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2/5 현지시각 기준)

- ECB 라가르드 총재, 빌로이 드 골로 정책위원(프랑스), 마클루프 정책위원(독일)의 경제, 은행업, 금융감독, 통화정책 연설 예정. ECB 통화정책 관련 발언에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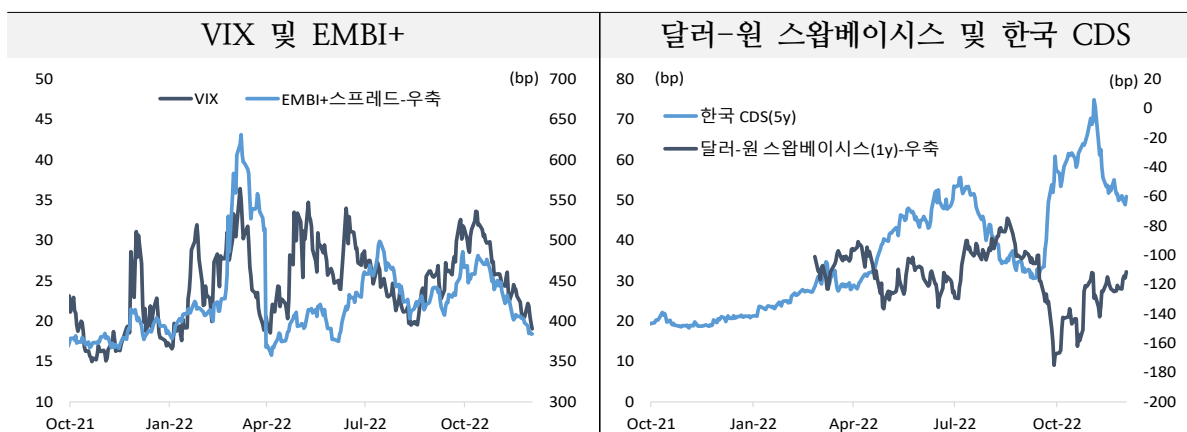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